

## 韓國의 寺刹建築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佛敎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高句麗 小獸林王 2년(372년) 前秦王 符堅이 僧 順道를 시켜 佛像과 經典을 들여옴으로써 傳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佛敎는 百濟와 新羅에 傳播되었고 마침내 불교는 한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바다 건너 日本 땅에 이르기까지 文物發展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특히 현존하는 寺刹나 寺刹은 韓國建築史 연구분야에 어느 遺蹟이나 遺構 이상으로 量的·質的 면에서 우수한 자료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또한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建築活動과 造形意識을 더듬을 수 있어 더욱 그 진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寺刹 중 지상의 木造建築 遺構는 高麗時代 중기 이전의 것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

佛敎傳來以後 三國期·統一新羅·高麗·朝鮮時代의 重要寺刹 및 寺刹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高句麗는 小獸林王 5년(375년) 阿道가 肖門寺와 伊佛蘭寺를 세웠고 廣開土王 2년(392년)에는 大同江岸 平壤에 9개 절을 창건하였는데 기록에서 알려진 寺名은 金剛寺·盤龍寺·金洞寺·珍丘寺·大乘寺·大原寺·維摩寺·中台寺·開元寺·燕口寺·靈塔寺 등이며 이들 寺址는 그 位置나 遺址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1938년 발굴되어 高句麗의 寺址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平壤의 大同江邊 淸岩里寺址(金剛寺라고 推定하고도 있음)와 大同郡의 元五里 8角殿址,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定陵寺址 등만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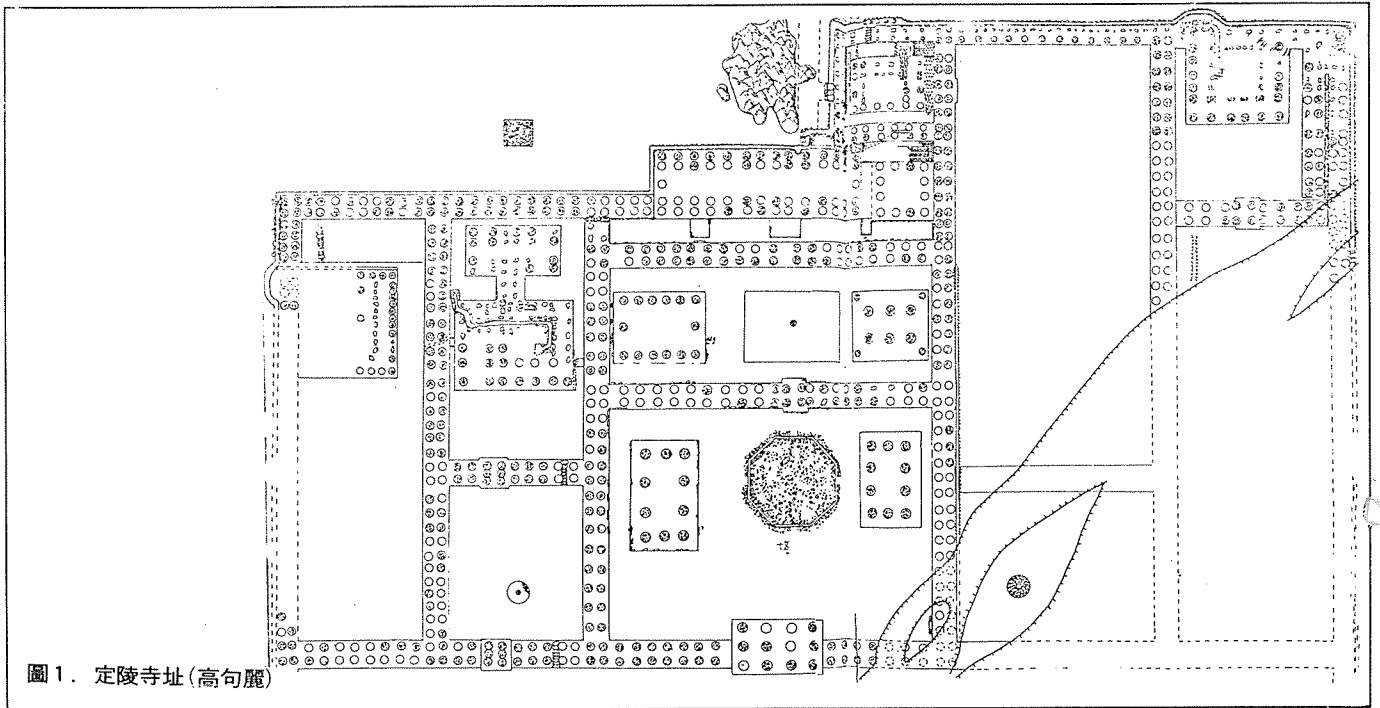
이들 寺址는 모두 塔의 平面이 8角形인 것이 특징이며 소위 三金堂式 배치가 공통점으로 되어 있다. 淸岩里寺址는 高句麗時代의 平壤城 遺址로 생각되는 土壘의 거의 중앙 平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台地에서 排水溝가 나타나고 高句麗의 耳層이 발견되어 이를 기준으로 8角形의 建物址(一邊長 10.02m~10.23m)와 이 8角殿址 남쪽의 中門址로 보이는 建物址, 그리고 8角殿址의 東과 西에 위치한 東·西建物址, 北쪽의 大建物址(東西長 30m)가 확인된 바 있어 이 寺刹의 中心廓이 8角의 塔을 중심으로 東·西·北에 金堂이 있고 남쪽에는 中門이 있으며 그 후방에 講堂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元五里寺址는 淸岩里로부터 동남쪽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淸岩里寺址와 같이 一邊 약 3.3m의 8角基壇이 나타났으며 이 建物址 東과 西에는 南北長이 28m, 東西長이 13.8m 크기의 장방형 建物址가 확인되어 역시 淸岩里寺址와 同形의 配置形式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또한 1976년 이전 발굴된 定陵寺址는 平壤에서

東南쪽 22km 되는 무진리 왕릉동(前地名: 中和郡 眞坡里)에 있다. 寺址는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第1區域은 8角建物址(推定 塔址)를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建物址와 이들 建物址를 둘러막은 廻廊이 있다. 이 區域은 南北方向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東西로 가로지른 廻廊에 의해 4개의 區間으로 구분되었다. 南쪽에 자리잡은 區間에는 8角建物址가 있고 그 좌우에 3間, 2間的 長方形 建物址가 8角建物址를 향해 서로 對應해 있으며 그 북쪽 區間에는 橫列로 3개의 建物址가 南向하여 있고 그 後方에 講堂址로 추정되는 13間, 4間的 橫長한 建物址가 역시 南向하고 있다.

이 第1區域은 이 寺刹의 핵심구역이며 그 좌우에 각각 2개 區域씩이 連接하여 附屬建物들을 배치하고 있다. 寺址에서 밝혀진 建物址는 모두 14개소였고 廻廊址도 14개소였으며, 寺址 전체 규모는 南北 132.8m, 東西 223m로 현재까지 밝혀진 寺址中 가장 큰 규모이다. 이 寺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軸에 대한 非對稱性이며 건물의 柱間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百濟는 高句麗보다 12년 늦게 枕流王 元年(384년) 東晉으로부터 摩羅難陀에 의해 佛敎가 전래되었으며 385년에 漢江流域의 漢山에 佛敎가 造營되었고 그 후 都邑을 錦江流域의 熊津



(지금의 公州)으로 옮기고 다시 泗泚(지금의 扶餘)로 遷都한 聖王代에 이르러서 百濟佛敎는 크게 隆盛되었으며 聖王 19년(541년)에는 梁으로부터 工匠, 畫師를 초청하여 佛寺의 堂塔을 장엄하게 造營하기 시작하였으며 同王 30년(552년)에는 日本에 佛經·佛具·佛像 등을 보내 佛敎를 전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 일본문화 啓發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였다. 百濟寺刹로 현재 잘 알려진 곳은 益山の 弥勒寺址, 扶餘의 定林寺址, 琴公里의 金剛寺址를 비롯하여 扶餘의 軍守里·佳塔里·東南리에 있는 이름 모르는 寺址들과 公州의 大通寺址, 西穴寺址 등이 남아 있어 대체적인 寺刹의 배치형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寺址들의 배치는 대부분 一塔一金堂式의 主軸上的 배치이며 특이한 배치를 갖고 있는 寺址는 1981년 이후 지금도 發掘中에 있는 益山の 弥勒寺址로서 三院式 伽藍이라 할 수 있다.

一塔一金堂式 배치형식은 중앙의 塔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의 主軸 위에 塔 후방에 金堂과 講堂을 두고 塔 전방에는 中門을 배치한 형식이며 이 구역을 廻廊으로 둘러막은 평면형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百濟的 伽藍의 典型이었으며 新羅와 일본의 고대 伽藍에서도 이러한 百濟的 伽藍形式을 찾아 볼 수 있다.

新羅는 불교가 전래된 경우가 두가

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 하나는 訥祇王 때 僧 墨胡子가 高句麗로부터 지금의 善山地方에 들어와 포교한 것이며 또 하나는 法興王 15년(528년) 異次頓의 순교로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처지로서는 기록에 의한 확실한 근거로 佛敎建築의 시작은 法興王 15년 불교가 공인된 이후 6년이 경과한 534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534년은 興輪寺가 寺刹建物로서는 최초로 건립되었고 그 후 永興寺를 비롯하여 皇龍寺·祇園寺·實際寺·三郎寺·芬皇寺·靈廟寺 등이 속속 창건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新羅는 일반 건축활동에 佛事建築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新羅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궁궐건축이 이미 존재하였고 시가지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三國史記」에 의하면 婆娑王 22년(101년)에 月城이 완성되었고 慈悲麻立干 12년(469년)에는 <定京都 坊里名>이란 기록이 있어 도시의 규모가 정비되고 坊里名까지 정해질 정도였으며 炤知麻立干 9년(487년)에는 <葺月城>이라 하여 月城에 기와를 덮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新羅는 불교공인 이전 궁전다운 궁전, 도시다운 시가지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불교가 공인되고 留學求

法을 위해 중국 및 인도로 건너가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고 돌아온 승려도 늘어나고 佛寺造營이 차차로 성황을 이루게 됨에 따라 건축 기술에도 新技法이 전래되고 새 공법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짙다. 新羅에 앞서 불교건축에 좀더 앞섰던 高句麗나 百濟의 건축기법은 이미 新羅의 불교 공인 이전에 신라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음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극적인 기술도입은 공인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불교건축은 三國 共히 그 개개건물 성격이 궁전건축의 개개건물과는 큰 차이가 없었겠으나 寺域 전체에 걸친 계획, 즉 마스타플랜에 있어서는 陽宅的인 궁전과 陰宅的인 성격의 불교건축간에는 造營의 의식내용이 약간 相違하였을 것이다. 또한 개채건물에 있어서도 塔建築과 같은 불교건축 기능에만 필요했던 특정건물의 造營을 위해서는 특수한 공법의 새로운 도입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新羅에는 어떠한 寺刹들이 존재하였나를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요사찰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興輪寺(527~544년)·永興寺(535년)·皇龍寺(553~645년)·神元寺(眞興王代)·祇園寺(566년)·天柱寺(眞平王代)·三郎寺(597년)·芬皇寺(634년)·靈廟寺(635년)·法林寺(善德王代)·皇福寺(文武王 以前)·四天王寺(679년)·望德寺(685년)·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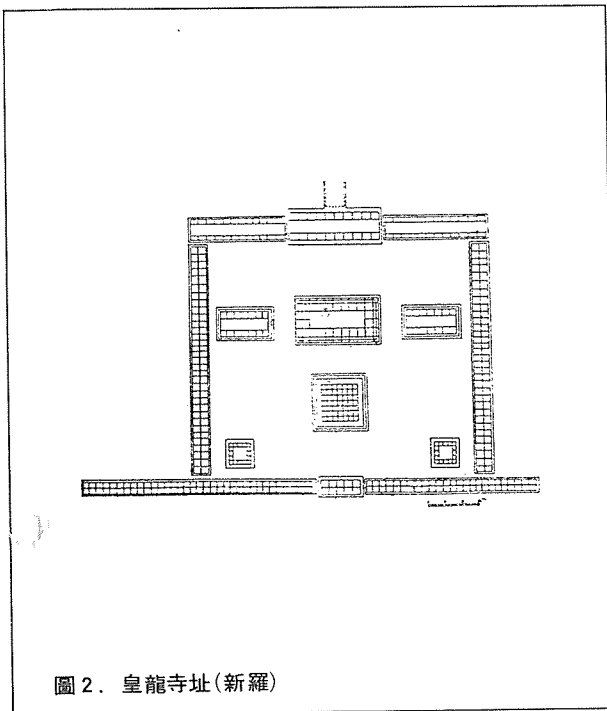


圖 2. 皇龍寺址(新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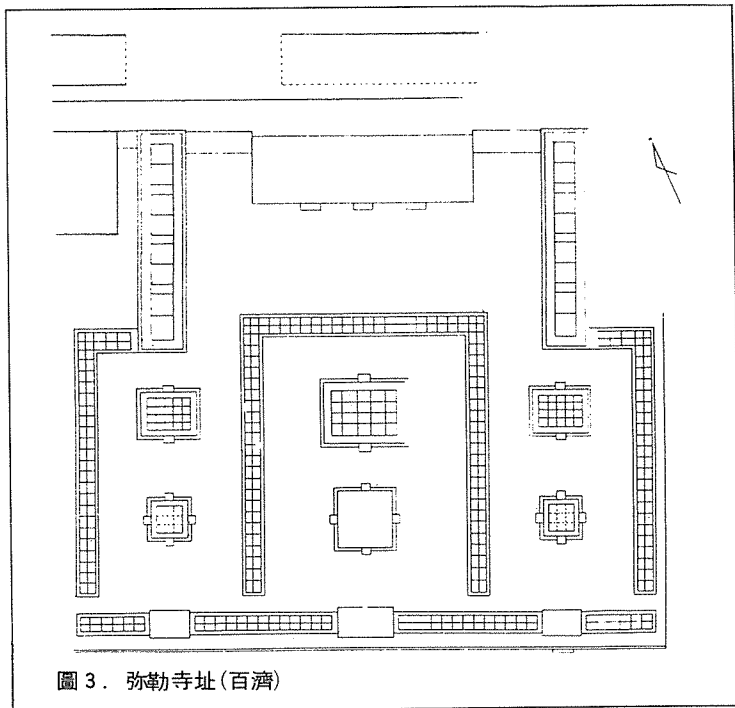


圖 3. 彌勒寺址(百濟)

山寺(720년)·感恩寺(682년) 등 150여 개가 보인다.

이들 사찰의 배치는 삼국통일 이전까지 주로 子午線上의 主軸 위에 南으로 부터 中門·塔·金堂·講堂을 배열하고 中門으로부터 講堂에 이르는 구역을 矩形의 廻廊으로 둘러싸아 부처의 專有空間으로 聖域化하고 그 주변에 부속건물인 僧房·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伽藍配置에서는 어디까지나 중심부에 놓인 塔과 金堂이 공통으로 伽藍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핵심건물인 塔과 金堂은 강하게 강조시키기 위해 높게 造營하였고 주변건물의 존재보다 분명하고 숭고하게 그 성격을 格上시키려 했다. 또한 子午線上의 主軸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을 엄격하게 고수함도 중앙 위치의 塔과 金堂 존재를 보다 강력하게 표출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중국의 洛陽伽藍記에 나오는 永寧寺의 배치와 같은 것이며 永寧寺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이전의 궁전 배치 형식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라의 불교건축은 고구려로부터 전래되고 佛寺造營技術도 함께 고구려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사찰 중 신라시대의 伽藍配置와 동일형식을 갖춘 遺址가 발견되지 않아 고구려의 直流入 관계는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하여튼 중국의 永興寺, 그리고 백제 寺址 등에서 子午線上의 中門·塔·金堂·講堂 배치의 사찰예로 보아 당시의 전형적인 배치규범은 子午線上의 건물배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신라의 사찰배치 기본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子午線上 主軸에 中門·塔·金堂·講堂을 전면으로부터 순차로 배치하고 중문으로부터 강당에 이르는 구역을 廻廊으로 둘러싸은 소위 一塔一金堂式과 또 하나는 子午線上 主軸 위에 中門·金堂·講堂을 배치하고 金堂 전면 좌우대칭 위치에 塔을 배치하는, 소위 二塔一金堂式 배치가 기본배치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一塔一金堂式의 배치형식에는 金堂의 좌우에 동·서 金堂을 배치하거나 塔의 전면 좌우에 건물을 배치한 皇龍寺와 같은 예가 있으며, 二塔一金堂式은 金堂 좌우로 翼廊이 붙거나 中門 좌우로 펼쳐진 廻廊 끝에 經樓와 鐘樓를 배치한 佛國寺와 같은 예가 있다.

皇龍寺는 子午線上 主軸에 中門·塔·金堂·講堂을 일렬로 배치하고 塔 전면 좌우에는 方形의 建物(經樓와 鐘樓로 추정되는 建物址)을, 金堂 좌우에도 역시 長方形 建物(東金堂 및 西金堂址로 추정)을 배치하고 講堂 좌우에도 廻廊아닌 建物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현재 알려진

伽藍의 배치 중 특이한 것이며 이 배치형식은 고구려의 伽藍配置形式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산물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즉 고구려의 一塔三金堂形式의 塔中心 東西北 金堂配置가 신라에 들어와 橫列三金堂 배치형식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二塔一金堂式 伽藍配置는 8세기 중엽의 佛國寺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언급하듯 子午線上 主軸에 中門(紫霞門), 金堂(大雄殿), 講堂(無說殿)이 일렬로 배치되고 金堂 앞쪽 좌우 대칭 위치에 동쪽으로 多寶塔, 서쪽에 석가탑이 있고 中門 좌우에 있는 南廻廊의 東端과 西端에는 左經樓와 泛影樓가 있는 형식이며 感恩寺의 경우에는 佛國寺의 배치와는 달리 前面 廻廊 兩端에 별도의 건물없이 廻廊으로만 되었다.

四天王寺는 望德寺와 배치형식이 동일하나 感恩寺나 佛國寺와 달리 金堂 후면 좌우 대칭위치에 方形의 建物址(經樓 및 鐘樓址로 추정)가 있어 二塔一金堂式 형식중에서는 좀 복잡성을 띄운 寺址라 할 수 있다.

芬皇寺(634년 初創)는 현재의 출입구가 남쪽이지만 원래의 伽藍配置는 西向이고 中門이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배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다. 현재 境內에는 模博石塔이 남아 있어 원상의 일부를 볼 수 있으나 9층탑이었던 것이 3층만 남아 있어 塔 자체만의 전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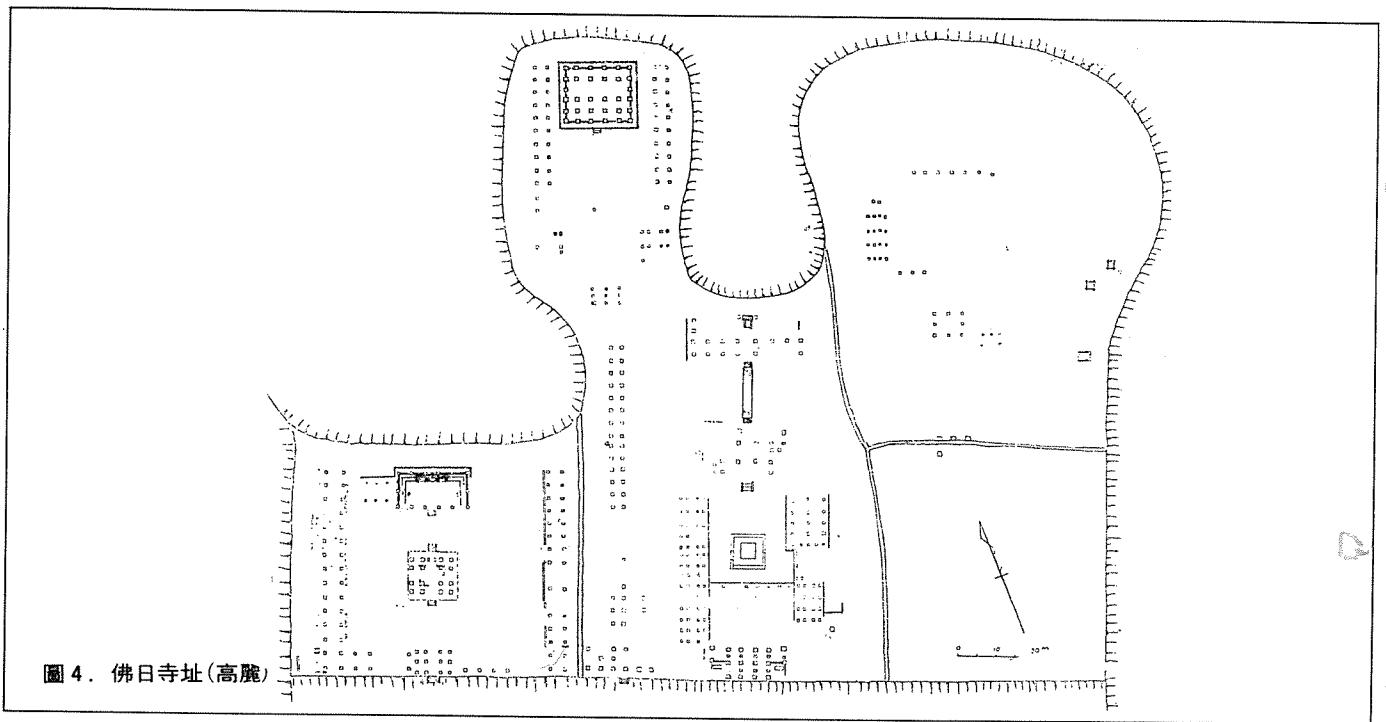


圖 4. 佛日寺址(高麗)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塔 위치만은 원상 그대로이고 주변 건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朝鮮朝 후기에 세워진 堂宇만이 옛 절터 위에 세워져 있어 원래 배치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의 芬皇寺 千手大悲條에 보이는 〈…左殿比 壁畫千手大悲前…〉 기록으로 보아 殿과 塔이 橫列式으로 된 배치, 즉 일본의 法隆寺나 法起寺의 金堂과 塔 관계와 같은 伽藍配置가 아니었나 생각해 한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 융성했던 불교건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國泰民安을 위한 佛事活動은 어느 시대보다 더욱 성행하였다. 太祖는 宮闕造營과 때를 같이 하여 都城內에 十刹을 창건하였고 崇佛思想은 太祖 이후 歷代王들에게 계속 이어져 王城에는 佛刹로 꽉 채워져 있었던 것 같다.

「宋史」에 보면 〈高麗王城有佛寺 土十區〉란 기록이 보이며 「高麗圖經」의 雜俗施水條에는 〈王城長廊每十間張幕設佛像…〉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王城의 佛寺 面貌가 어떠하였는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定宗 때의 開國寺, 光宗 때의 佛國寺, 文宗代의 興王寺는 巨刹이었으며 開城郊外의 靈通寺·弘化寺 등이 유명사찰로 알려지고 있다.

高麗의 佛寺는 道說禪師의 風水圖讖說에 따라 그 위치가 占定되었다. 伽藍配置는 통일신라시대의 二塔一金

堂式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한편 三國期에 유행했던 一塔一金堂式도 병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一塔一金堂式의 대표적인 사찰은 佛國寺이며 二塔一金堂式은 興王寺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伽藍配置形式 외에도 開城의 演福寺는 東殿西塔式의 배치이며, 南原의 萬福寺는 東殿西塔式의 배치 형식을 갖고 있어 앞서 언급한 일본의 東殿西塔式 法隆寺와 西殿東塔式의 法起寺와의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 차가 일본의 것이 앞서는 遺構이므로 혹 우리의 것이 일본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가 들기 쉬우나 奈良時代의 일본 伽藍配置를 고려시대에 재현시켰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말한 芬皇寺 같은 寺址나 高仙寺址의 東殿西塔式으로 보아 그러했던 伽藍은 우리나라에 일찍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있다.

또 고려시대의 伽藍에 있어 特記해야 할 사항은 한국적 민간신앙의 요소가 伽藍에 스며들므로서 三國期로부터 통일신라, 그리고 高麗初에 이어진 整齊된 伽藍制度가 차차 雜然性을 띄우게 되었고 山神閣과 같은 사마니즘적 건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여 伽藍制度에 있어서도 韓國的인 나름대로의 配置形式이 취하여지기 시작하였다. 建物에 있어서도 門과 拜殿의 機能을 同時에 담당할 수 있는 樓門形式이 流行되었던 것 같으며 地勢

에 따라 軸의 變形, 多軸性 등이 노골적으로 寺刹建築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좋은 예는 榮州의 浮石寺, 安東의 鳳停寺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건축은 歷代王들의 抑佛政策에 의해 종래의 隆盛함을 따르지 못하고 점차 쇠퇴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佛敎는 民間人의 信仰對象이 되었고 그 명맥은 名僧大德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따라서 佛敎建築은 官用的 입장에서 民用的 입장으로 轉換되어 建築에 있어 韓國의 성격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의 佛敎建築은 王亂前과 壬亂後에 그 성격이 크게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壬亂前 개개의 建築들은 그런대로 高麗時代의 傳統 밑에서 그 영향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을 남아 있는 遺構를 통해 알 수 있으나 王亂後의 것은 확실히 壬亂前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平民的의 내음을 풍겨주는 소박함과 非整齊의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官爲主의 造形과 民爲主의 造形 차이를 실감케 하며 韓國的 造形意識은 오히려 현재 남아있는 壬亂後의 寺刹建築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